

통합교육감 선거 출마자 모두 '링 위로'...레이스 본격 점화

現 시·도교육감 비롯 8명 출사표

김대중 도교육감 내일 출마 회견

이정선·김해룡·고두갑 '정책 연대'

정성홍·장관호 단일화 방식 이전

강숙영 완주·최대욱 연대 가능성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통합교육감 선거 열기도 달아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통합교육감 선거에는 현직 시·도교육감을 포함해 총 8명이 나선다.

현재 강숙영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고두갑 목포대 교수·김대중 도교육감·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선 시교육감·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가나다순) 등 8명이 통합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달 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주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전남 순천에 후원회 사무소를 마련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 수준 향상 평준화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 6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대중 교육감은 오는 15일 광주 YMCA 무진관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잇따라 출마회견을 열어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힐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2000미래교실 구축 등 그동안의 성과

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현직을 포함한 모든 출마자가 링 위에 오르면서 후보 간 정책 연대와 단일화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정선 교육감과 김해룡 전 여수교육감, 고두갑 교수가 정책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광주·서부권·동부권 주자들의 합종연횡이 낱을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는 경선 방식에 대해 후보 간 입장 차를 드러내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성홍 전 지부장과 장관호 전 지부장이 공개적으로 단일화 의지를 밝히고 시·도민공천위도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선 방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시·도민공천위원회가 만나 공천 료 등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도민공천위 측이 내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연기됐다. 이와 관련, 장관호 전 지부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숙영 전 장학관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강 전 장학관은 "다른 후보들과 정책연대 또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선거 완주가 목표"라고 밝혔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장은 다음주 중 광주 서구 치평동에 선거사무소를 꾸리고 오는 15일과 17일 순천과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 전 여수교육장은 "교육 비전이나 뜻이 맞는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비롯해 단일화를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두갑 교수와 최대욱 전 부회장은 교육 행정 전문가를 자임하며 표발을 일구고 있다. 고 교수는 다음 주 중 광주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최 전 부회장은 '노마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가려져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통합교육감 선거였지만, 현직 교육감이 모두 등판했고 정책연대나 단일화 등 합종연횡이 가시화되면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욱 기자



세월호 참사 추모 바람개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광주 서구청 광장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바람개비 304개가 설치돼 있다. 서구는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광주서구청 제공>

市·道선관위 '광주선관위 중심' 재편 전망

행정통합 맞춰 조직 개편 논의 진행

전남선관위 흡수·인력 재배치 유력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선거관리 체계 역시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광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선관위와 전남선관위를 통합해 광주선관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선관위는 5개 자치구 선관위를, 전남선관위는 전남 22개 시·군 선관위를 각각 지휘하며 선거 관리, 지도·단속, 홍보·교육,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안이 확정될 경우 이 같은 이원화된 체계는 단일 구조로 재편되며 전남선관위가 광주선관위로 흡수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존 전남선관위 청사는 일부 선거 지도 부서만 남기고 인근 시·군 선관위의 업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감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은진 기자

민주 여수시장 경선 연기...당원명부 유출 논란

전남도당 "중앙당, 경선 방식 재논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본경선 일정이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4-15일로 예정됐던 경선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중앙당이 현재 경선 방식을 재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서는 예비 경선을 거쳐 김영규·백인숙·서영학·정기명(가나다 순) 후보 등 4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갑작스러운 경선 일정 변경은 최근 141명의 이름·연락처 등이 담긴 당원 명부 유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규 예비후보는 이날 여수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언론 기사를 근거로 "당원 명부 유출과 활용은 경선 과정의 신뢰성을 흐드는 부정선거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 관련자 처벌, 서모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영학 예비후보는 곧바로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서 후보는 "당내 명부 유출 논란과 저는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에서 이미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허위 사실로 보이는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치 신인으로 구태의연한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저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음모"라고 밝혔다. /김재정·여수=김진선 기자

민주 장성군수 경선 '3인 결선' 변경

중앙당, 박노원 후보 재심 인용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장성군수 경선이 3자 결선투표로 변경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공지를 통해 "중앙당이 김한중·박노원·소영호(가나다 순) 등 3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장성

군수 경선 결선투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3명이 경쟁하는 결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도 최다 득표자가 본 선거 후보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결선 진출자 발표 후 박노원 후보 측이 신청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러한 방침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재정 기자

제22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양귀비꽃 미식 대향연

2026 05.22.(금) - 24(일)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양귀비꽃밭 일원

주최·주관: 나주시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